



제목	Conversion and Apostasy in the Late Ottom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2. 8. 27.
저자	Selim Deringil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281
ISBN 또는 ISSN	978-1107004559

내용 요약

이 책은 탄지마트 이후 오스만제국에서 나타난 개종을 역사화하고 맥락화하여 연구한 책이다. 19세기 오스만제국이 쇠락함에 따라 제국의 전통적인 종교 구조도 무너졌다. 저자는 그 기간에 발생한 개종을 그 이전 시기의 개종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 자체의 성격과 두드러진 특징에 주목한다. 저자는 오스만정부의 관료와 군인이 되기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혁명주의자들,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예배하며 초승달을 십자가로 바꾸려고 하는 비밀스런 기독교인,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르메니아인,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분리적 개신교 공동체 등 방대한 개종 사례를 연구한 결과, 개종이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다목적 도구였다고 주장한다. 즉, 개종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동과 경제적 · 재정적 특권을 얻기 위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억압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좀 더 현대적인 새로운 그룹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초기에 관료들은 개종자들을 골칫거리 또는 두통거리 정도로 간주했으며, 개인들은 관료주의의 틈을 이용하여 조용히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탄지마트 이후 발생한 개종은 탈국가화의 시도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에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의 피할 수 없는 결합은 개종을 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다. 종교와 민족성 사이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개종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외교적, 민족적 현상으로 변형되었다.